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지사운영대의원 회의 개최

김상준기자 | 승인 2025.06.26 18:45 | 11면

기상이변 재해피해 예방 '홍수기 저수지 저수율' 관리방안 논의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합천지사는 지난 25일 지역농업인,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지사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손영식) 합천지사(지사장 김동원)는 지난 25일 지역 농업인,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상반기 지사운영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대의원회는 농업인이 직접 공사 경영에 참여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ESG경영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날 운영대의원들은 유지관리, 재난대응, 농촌개발 등 공사 주요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항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김동원 지사장은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시 저수지 수용용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저수지 월류나 붕괴 재난으로부터 주민피해를 방지하고자 평균 75%의 저수지별 관리저수율을 설정해 운영하는 "홍수기 저수지 저수율"에 대해 설명하며

운영대의원들의 이해와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를 부탁하고, 올해에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상준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준기자